

폼생폼사

분위기있게 책 읽고 싶은 도서관



정우섭
위스콘신주립 밀워키대학교
정보학과 교수
wjj8612@uwm.edu

들어가는 말

필자가 한국에 들어와 초빙교수로 지낸 지도 어느덧 8개월이 되었다. 대학 강단에서, 그리고 도서관 현장에서, 많지는 않지만 직·간접적으로 한국의 도서관을 접하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무엇보다도 기쁘다. 필자가 학·석사를 마쳤던 외교학과를 떠나 문헌정보학과로 전공을 바꿔 미국 유학길에 오른 것이 15년 전 일인데, 그때 전공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자료가 없는 혹은 있어도 보여주지 않는 도서관들이었기에(이 부분은 다른 글에서 다루게 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현재의 한국 도서관들의 눈부신 발전을 보는 필자의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직업 탓일까, 성격 탓일까, 우리나라 도서관을 보면서 무엇인가 1% 부족한 부분이 있는 듯하여 이렇게 또 글을 쓰게 된다. 요즘들어 부쩍 드는 생각은 소위 “폼생폼사”라는 말이다.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실력이야 어떻든지간에 운동이든 문화생활이든 폼이 좋아야 살고 폼이 안나면 죽는다는 우스개소리이다. 공공도서관도 그렇고 대학도서관도 그렇고, 폼이 나지 않는다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폼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적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 왜 그럴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일단 건축물로서의 도서관에서부터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든다.

건축물로서의 도서관

독자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지금 구글 이미지 검색에 들어가서 각국의 국립도서관들을 찾아보기로 하자. “National Library”라는 검색어를 먼저 쓰고, 이어 각국의 나라 이름을 입력하면 된다. 또한 Library of Congress, Royal Library, British Library 등도 검색해 보자. 검색된 사진들을 크게 확대해서 감상해 보면 다른 나라들의 국립도서관, 왕립도서관, 의회도서관 등은 많은 경우에 그 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예술인 경우가 많다. 사실 미국국회도서관은 물론이거니와 필자가 살고 있는 밀워키라는 도시의 밀워키시립 도서관만 해도, 방문객들은 그 앞에서 도서관을 배경으로 사진을 많이 찍는다. 우리나라 국립/시립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앞에서 그 건축미에 매료되어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필자는 지난 여름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열린 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 참석하면서 덴마크 코펜하겐도 방문했는데, 그곳에 있는 왕립도서관의 건축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왕립도서관은 별명도 블랙 다이아몬드(Black Diamond)라고 불릴만큼 특색있게 지었으며 바로 옆에 연결되어 있는 고풍스러운 기존 건물과 잘 조화를 이루면서 수로를 따라 가는 유람선에서도 놓치지 말고 봐야 하는 주요 건축물로 자리잡고 있었다.

미국 곳곳의 마을에 있는 공공도서관들도 상당히 건축미에 신경을 쓰면서 지어졌고 대학의 도서관들 역시 건축예술작품으로서 손색이 없음을 부인할 수 없다. 미국 영화들에 자주 등장하는 대학 캠퍼스들은 주로 도서관을 중심으로 보여지고 있음도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심지어는 뉴욕 공공도서관에서 근사하게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꿈이라는 대사도 어느 영화에서 나온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도서관들도 건축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제안하는 바이다.

책 읽고싶은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건축미가 외형적인 것이라면 도서관의 내부 인테리어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에 필자는 어느 대학 정문 앞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그 대학 교수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야 할 일이 있었다. 그분을 만나 인사를 하고 커피를 한 잔 받아 들고 어디에 앉을까 고민하다 그래도 2층이 조용하겠다 싶어 올라갔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다. 꽤 많은 테이블에 학생들이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열심히” 책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무도 말하는 이가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이 1층으로 내려와야만 했다. “빼박하게 보자면” 학생들이 무슨 돈이 많아서 아침부터 비싼 커피 사두고 커피전문점에 앉아 있을까 나무랄 수도 있겠지만, 뒤집어 보면 그만큼 학생들이조차 분위기 있는 곳에서 나름대로 폼을 잡으며 책을 보고 싶은 바람이 있다는 것이 아닐까? 바로 정문을 지나면 곧 도서관도 있을 것이고 빈 강의실에서 공부할 수도 있을 터인데 아무래도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분위기 있는 공간에서 폼을 잡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를 “사치”라고 탓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 도서관들에서 이러한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어느 글에서 필자가 이야기한 부분인데 현재 미국의 대학도서관들은 인포메이션 커먼스(information commons)라는 이름으로 1층에 들어가면 커피전문점이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자리잡고 있으며, 그 주위에는 분위기 나는 소파와 탁자가 적지 않아 놓여 있고, 조명 역시 분위기를 잡아주면서 그 아래서 자유롭게 책도 읽고 이야기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래야 학생들이 도서관에 오기 때문이다. 덩달아 교수들과 교직원들도 줄을 서서 커피를 사고 그곳에서 나름대로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최근 서울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가 몇 달간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문을 열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궁금해 하면서 찾아가고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서점들의 역할이 막강해졌음을 생각할 때에는 얼핏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분위기와 품을 생각한다면 그 의아함은 곧 사라지게 된다. 교보문고에 가는 사람들에게 사치를 부린다고 나무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교보문고의 분위기가 과연 만족할 만한 것인가의 문제는 개인의 판단에 맡길 문제이지만 적어도 도서관들의 입장에서는 교보문고와 같은 대형서점들의 분위기는 경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보문고에 사람들이 책을 읽고 사고 싶은 분위기 때문에 간다면 도서관들도 이용자들에게 책을 읽고 싶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작업실”로서의 도서관

소개목이 의아스러울 것이다.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얼마 전에 어느 지방의 시립도서관에 간 일이 있었는데, 끊이지 않는 민원에 “바람직하지 않게도” 일반열람실 좌석을 900석 넘게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좌석들은 층별로 남녀가 분리되어 예약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인 즉 여성 이용자들이 옆 좌석에 불편함을 주는 남성들이 앉는 것을 무척 꺼려하기 때문에 그 민원을 해결하고자 그렇게 “남녀칠세부동석”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그러면 같이 앉고 싶은 젊은 두 남녀는 어떻게 하나고 농담으로 마무리했지만 이 역시 분위기가 문제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고 있었다.

위에 언급한 덴마크 왕립도서관 블랙 다이아몬드를 견학하는 와중에 들었던 재미있는 현상은 이 시립도서관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평일이어서 그런지 필자가 방문했을 때 블랙 다이아몬드에는 이용자들이 많지 않았다. 그리고 보존 등의 가치는 있으나 인기가 없는 자료실들은 더욱이 비어있었고, 너무 이용률이 낮은 자료실들은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까지 했었는데, 유독 한 자료실만이 이용자들로 꽉 차서 빈자리가 없었다. 그 자료실은 바깥에서 안쪽을 훑히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전면 유리벽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아름답고 멋지고 진장한 선남선녀들이 얼굴을 바깥으로 향하게 하고 책을 읽거나 노트북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도서관 투어를 해 주던 담당 사서가 말하기를, 코펜하겐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한 소위 “작업공간”이라는 것이다. 그 이야기에 박장대소를 하고 다시 들여다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였다.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이루어지는 지는 알 수 없으나, 돌이켜보면 그만큼 도서관이 분위기를 살려준다는 것이다. 근사한 짝을 만나면 핑퐁하고 알먹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분위기 좋은 공간에서 품잡고 책을 읽거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어쨌든 일석이조가 아닐까.

불쾌감을 줄만큼 잘 씻지도 않고 “공부만” 하겠다는 그런 남성들은 아마 분위기 좋은 자료실에는 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생각한다. 열람실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하고 남녀가 나란히 앉을 수 있게 해달라고 민원을 넣을까 생각 중이다.

어린이도서관은 놀이터여야 하는가

지역 공공도서관에 가보면 특히 어린이도서관에 가면 아이들의 놀이터인지 도서관인지 구별이 안 되게 어지럽고 시끄럽기까지 한 경우가 많다. 물론 아이들에게 강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책과 접해주기 위해서 자유분방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놀이터를 방불케하는 분위기는 도서관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아이들의 공간이 있으면 어른들의 공간도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도서관에 가서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읽고 싶은 책을 읽으면서 생각에 잠겨야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치일지 모른다.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교육지책으로 신문 혹은 정기간행물 자료실을 “어르신용”으로 활용한다는 기발한 아이디어도 나오긴 하지만 이 역시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공공도서관에 가면 그런 사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지역 공공도서관을 가던, 국립도서관에 가던, 차분한 분위기 속에 여유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많다. 아이들도 결코 놀이터처럼 뛰어 놀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책을 읽을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는 것이다. 가구도 그렇고 내부 치장도 그렇다. 이런 경향은 어쩌면 대형 서점의 영향일 지도 모른다. 미국의 경우, 반즈앤노블(Barnes & Noble)서점은 전국 어디에나 있는 대형 체인이지만,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이 책을 읽으러 오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커피전문점이 항상 그 안에 있어서 카페인지 책방인지 혼동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렇게 분위기 나는 서점에서 아이들은 절대 뛰어다닌다거나 떠들지 않는다. 주말에 우리나라 대형 서점의 아동코너에서 보는 풍경과는 사뭇 대비된다고 하겠다.

작은도서관이나 큰 도서관이나

현재 한국의 도서관 정책의 화두는 작은도서관이다. 작은도서관 1천 개를 만드는 것이 가장 가까운 목표인데,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을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정책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도서관의 절대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작은도서관에서는 책을 읽을 수 없다. 적어도 폼나게는 읽을 수 없다. 일단 그 공간이 협소하여 서가를 놓기에도 턱없이

부족하고 있는 공간들은 거의 아동용 공간으로 되어 있다. 가장 효율적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물의 외형이나 내부 장식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괜찮은 소파에 앉아 차 한 잔을 옆에 두고 조용히 책을 읽는다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이다. 커피전문점은 커녕 자판기 한 대도 없는 작은도서관이 대다수이다. 이런 의미에서는 공공도서관은 일단 커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복잡하지 않는, 그런 큰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작은도서관을 수 천 개 짓기 보다는 각 시·군·구에 국립중앙도서관만한 도서관을 하나씩 지으면 어떨까. 그러한 도서관이 있다면 책을 읽을 수 없는 작은도서관에 걸어 가기 보다는 버스를 타서라도 올만하지 않을까? 미국 워싱턴에 있는 미국국회도서관이나 뉴욕의 공공도서관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오고 있다.

도서관의 지리적 위치

세계에서 유명한 도서관들은 시내 중심가에 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영국 국립도서관, 덴마크 왕립 도서관, 미국국회도서관, 뉴욕공공도서관 등등 모두가 시내 중심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도서관들은 어떠한가. 국립중앙도서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서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심지어 택시 운전사들도 강남성모병원(현재는 서울성모병원) 앞이나 고속버스터미널 옆이라고 해야 알아 듣는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은 버스나 지하철로 가기에는 많이 힘들다. 지하철에서 내려서 한참을 걸어야 비로소 도서관 문을 지날 수 있다. 책을 읽기 전에 이미 몸이 지쳐버리는 것이다.

영국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은 도심 지하철역과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에게는 오히려 종로에 있는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등이 지하철역과 연결되어 있으니 아주 좋은 대조가 된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지역 공공도서관들은 아예 지역 자치단체 본관, 의회,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등과 함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는 지리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대표 도서관들을 짓고 있다고 하는데 그 지리적인 위치를 한번 더 고려하기를 권하는 바이다.

맺는 말

옛날 서울시청 건물을 그대로 두고 내부 리모델링을 하여 서울시 대표도서관으로 개관한다는 기쁜 소식을 들은 지도 꽤 된 것 같다. 관련 재단 설치 문제, 운영 주체 문제 등등 여러 이슈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렇게 큰 건물이 도서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환영할 일임에는 틀림없다. 옛날 시청을 예술적인 건축물로서가 아니라 역사적인 가치 때문에 보존한다는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울 한복판,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그 지리적 위치는 금상첨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만, 아직 그 내부를 들여다 보지는 않았지만, 다시 찾고 싶은, 매일매일 가고 싶은, 갈때는 꽃단장하고 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서울시 대표도서관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